

2.2.2. 전경함의

전경함의(foreground entailment)란, 발화에서 일반적으로 화자가 어떤 함의가 다른 함의보다 더 중요한지를 강세나 특정한 문장 구조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화자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초점을 강세나 특정한 문장 구조로 나타내는 것이다.

강세로서 함의를 나타낼 수 있다. 한 논항에 강세가 붙었다는 것은 그 논항이 다른 논항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 (16) ㄱ. 김 씨가 손으로 파리를 쫓았다.
 ㄴ. 김 씨가 손으로 파리를 쫓았다.

(16ㄱ)은 ‘손으로’에 강세를 주어 화자가 파리를 파리채를 사용하거나 입으로 불거나 발로 쫓지 않고 손으로 쫓았다는 것을 함의한다. (16ㄴ)은 다른 사람이 쫓지 않고 ‘김 씨’가 쫓았다는 것을 함의한다.

문장 구조로서 함의를 나타낼 수 있다. 어떤 문장의 구조를 변환하여 한 항목을 강조하면, 그 항목이 다른 논항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함의할 수 있다.

- (17) ㄱ. 김 씨가 파리를 쫓았다.
 ㉠ 다른 사람이 아닌 김 씨가 파리를 쫓았다.
 ㉡ 김 씨가 다른 것이 아닌 파리를 쫓았다.
 ㉢ 김 씨가 파리를 죽인 것이 아니고 쫓았다.
 ㄴ. 파리를 쫓은 것은 김 씨였다.
 ㄷ. 김 씨가 쫓은 것은 파리였다.
 ㄹ. 김 씨가 한 것은 파리를 쫓은 것이었다.

(17ㄱ)은 ㉠, ㉡, ㉢과 같은 여러 정보를 함의한다. 그러나 (17ㄴ)과 같은 분열문을 사용하면 (17ㄱ)의 함의는 ㉠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3. 전제와 함의의 차이

전제와 함의의 공통점은 발화에서 단언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전제와 함의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3.1. 정의의 차이

전제는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정보로부터 추론되는 것이지만, 함의는 사용된 언어의 의미의 논리적 관계로부터 추론되는 것이다.

3.2. 부정에서의 일치성, 불일치성

전제는 부정 문장에서 유지되지만, 함의는 부정문장에서 유지되지 못한다. 곧 전제는 부정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함의는 부정에 영향을 받는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함의 부정은 문장에서 유지되지 못하나, 전제는 유지된다.

- (1) ㄱ. 경찰이 도둑 세 명을 체포했다.
- ㄴ. 경찰이 도둑 세 명을 체포하지 못했다.
- ㄷ. 경찰이 있다.
- ㄹ. 경찰이 도둑 두 명을 체포했다.

(1ㄱ)의 부정문이 (1ㄴ)이다. (1ㄱ)과 (1ㄴ)은 전제는 (1ㄷ)이고, (1ㄹ)은 (1ㄱ)의 함의이다. 그런데 (1ㄱ)의 부정문 (1ㄴ)에서 부정어 ‘못하다’는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못하다’가 ‘도둑 세 명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체포하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부정어 ‘못하다’가 ‘체포하다’에 영향을 미칠 때 함의 (1ㄹ)이 살아남지 못하나, 전제 (1ㄷ)은 살아남는다.

3.3. 취소성, 불취소성

함의는 취소할 수 없지만, 전제는 담화에서 취소될 수 있다.

- (2) ㄱ. 프랑스 왕이 한국을 방문했다.
- ㄴ. 프랑스에는 왕이 있다.
- ㄷ. 누군가가 한국을 방문했다.

(2ㄱ)의 전제는 (2ㄴ)이고, 함의는 (2ㄷ)이다. 그런데 실제로 프랑스에는 왕이 없으므로, (2ㄷ)은 취소된다. 그러나 방문한 사람이 프랑스의 왕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한국을 방문했다는 것은 취소되지 않는다.

□ 참고 문헌

1. 김길영 외(2003), 《한국어 화용론》, 세종출판사.
2. S.C.Levinson(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이익환 외 역(1992), 《화용론》, 한신문화사.)

□ 학습 평가

1. 전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전제란, 어떤 문장이나 발화가 성립하기 위해서 단언된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가정되어야 하는 배경적인 내용이다.

② 전제는 화자와 청자가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화자가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

③ 한 문장의 전제는 그 문장이 부정되면 거짓이 된다.

④ 전제를 부정하면 적정하지 않은 문장이 된다.

2. 전제의 유형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① 그녀는 그에게 그렇게 말한 것을 후회한다.

② 나는 우리가 지금 제주도에 있다고 상상한다.

③ 강릉 지방에 다시 많은 비가 내렸다.

④ 그는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었다.

3. 함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어떤 문장이 다른 문장을 일단 함의한다면 그 함의는 취소할 수 있다.

② 하나의 문장은 많은 명제를 함의한다.

③ 함의란 한 문장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이다.

④ ‘항상 비가 온다.’는 ‘종종 비가 온다.’를 함의한다.

※ 정답과 해설

1. ③

한 문장의 전제는 그 문장이 부정되어도 참이다. 즉, 한 문장의 전제와 그 문장을 부정한 문장의 전제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전제는 부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다. 이를 ‘부정에서의 일치’라고 한다.

2. ②

②는 비사실적 전제의 예이다. 비사실적 전제란, 표현된 정보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①, ③, ④는 사실적 전제이다.

3. ①

함의는 일방향 함의이든 양방향 함의이든 어떤 문장이 다른 문장을 일단 함의한다면 그 함의는 취소할 수 없다는 불취소성을 갖는다.

IV. 대화함축

1. 대화함축의 개념

1.1. 대화함축의 정의

대화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이란, 주어진 발화로부터 추론을 끌어 낼 수 있는, 실제로 말해진 것 이상의 의미를 뜻한다. 대화함축은 전제, 함의와는 분명히 구분되지만, 우리는 종종 이것 전체를 간단히 함축(implicature)이란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라이스는 대화함축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화자의 발화 p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면 대화적으로 q를 함축한다.

i. 화자는 대화 격률, 또는 적어도(격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협력 원칙을 준수한다고 가정된다.

ii. 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화자가 q를 생각한다고 가정되어야 한다.

iii. 화자는, 'i의 가정을 보존하기 위하여 q가 필요하다는 것을 청자가 추론할 수 있다.'를 화자와 청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1.2. 대화함축의 중요성

1.2.1. 화용론 연구의 핵심임.

대화함축은 언어현상에 대한 화용론적 설명의 전형적인 예이다. 이것은 언어 외적 현상으로 언어의 조직 밖에 있으면서도, 상호 협력한다는 일반 원칙 내에서 언어의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화함축이란 개념은 언어 현상의 중요한 기능적 설명을 제시한다.

1.2.2. 속뜻을 파악하게 해 줌.

실제로 말해진 내용 이상의 의미를 함축의 개념이 설명해 준다.

(2) ㄱ. 갑: 몇 시인지 나에게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을: 글썄요, 우유배달부가 왔었습니다.

ㄴ. 갑: 몇 시인지 말해 줄 능력이 있는가?

을: [화용론적으로 해석되는 표지 (글썄요.)] 우유배달부가 말하기 바로 전에 다녀갔다.

ㄷ. 갑: 시계에 나타난 현재시간을 나에게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을: 아니오, 현재의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당신이 시간을 추측할 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즉, 우유배달부가 다녀갔습니다.

(2ㄱ)의 의미론적 해석이 (2ㄴ)이고, 대화함축적 해석이 (2ㄷ)이다. (2ㄴ)에는 이 대화의 핵심이 되는 요구 즉, 요구되는 정보에 대해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2ㄴ)은 그저 실제로 말해진 글자 그대로의 의미일 뿐이다. 그래서 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에 관해 의미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2ㄱ)은 (2ㄷ)과 같이 보다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1.2.3. 의미론의 모순을 극복함.

고정적 의미 개념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의사소통에 관한 이론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자연 언어는 흠볼트가 언급했듯이 움직이는 개체인 에너르게이아이다. 고정된 것이 아니고 계속 움직이고 법칙을 정확히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이다. 자연 언어의 사용에 대하여 완전히 약정이나 규칙에 기반을 둔 설명은 결코 완전할 수 없으며, 더욱이 의사소통에 의해 전달되는 내용은 언어의 문자적 의미나 사용에 의해 전달되는 의사소통력을 훨씬 능가한다. 대화 격률을 위배함으로써 생기는 해석의 일반적인 핵심은 언어 의사소통력에 대한 설명을 이 언어 사용에 대한 약정에만 국한시킬 수 없는 근본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언어 사용이 기대되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격률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함축의 개념은 의미론적 기술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준다.

- (3) ㄱ. 장군이 말에 올라타고 한양 쪽으로 달려갔다.
- ㄴ.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와고 영국의 수도는 런던이다.
- ㄷ. ??장군이 한양 쪽으로 달려갔고, 말에 올라탔다.
- ㄹ. 영국의 수도는 런던이고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이다.

(3ㄱ)과 (3ㄴ)에서 연결 어미 ‘-고’의 의미는 각각 다른 것처럼 보인다. 즉, (3ㄱ)에서는 ‘and then’을 뜻하므로 사건의 순서를 거꾸로 나열한 (3ㄷ)의 문장은 의미가 이상해진다. 반면에 (3ㄴ)에서는 ‘and then’의 의미가 아니라 진리표에서 사용되는 ‘&(각각 참인 두 문장을 연결하면 전체적인 진리치는 참이 된다.)’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3ㄹ)에서는 두 절의 위치가 바뀌어도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3)을 설명하는 데 의미론자들은 연결 어미 ‘-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방법을 사용한다. 중의성의 방법을 따른다면, 아주 단순한 낱말의 의미를 끝없이 확산시키게 된다.

- (4) ㄱ. 깃발은 흰색이다.
- ㄴ. 깃발은 흰색 그리고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이다.

(4ㄱ)에서는 ‘흰색’이 ‘단색’이란 의미인 반면, (4ㄴ)에서는 ‘부분적으로 흰색’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흰색’은 중의성(ambiguity)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방법은 ‘흰색’의 어떠한 의미가 (4ㄱ)에 포함되어 있는지 청자가 어떻게 아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의미론은 진리조건적으로 모순된 표현이 현실 언어에서는 가능하다는 것도 설명하기 어렵다.

(5) ㄱ.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가능하다.

ㄴ.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불확실하다.

ㄷ.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가능하다. 사실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실하다.

(5ㄱ)은 분명히 (5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일 ‘가능하다’의 의미를 ‘불확실하다’로 해석해 버리면 (5ㄷ)은 완전히 모순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5ㄷ)은 가능한 표현이다.

대화함축 개념이 이러한 의미론의 문제의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자연 언어의 표현은 간단하고 고정된 단일한 의미를 갖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화함축 이론은 그러한 고정된 의미의 핵은 종종 고정되지 않고 화맥에 의한 화용론적 의미, 즉 대화함축 의미의 집합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화함축의 개념이 도입될 때, 지금까지 나타난 의미론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1.2.4.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을 적절히 설명함.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이 적절하게 설명되고자 한다면 대화함축 개념은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글쎄, 여하튼, 그런데’ 같은 표현은 진리조건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미론에서는 다룰 수 없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루게 될 때, 대화함축을 낳는 화용론적 장치를 언급해야 한다.

대화함축의 원리는 의미가 없어 보이는 사실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쟁은 전쟁이다.’ 같은 명백한 항진명제(tautology)가 왜 중요한지, 은유법(metaphors)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1.2.5. 인류 보편적임.

일반 대화함축의 더욱 중요한 특성은 대화함축이 보편성(universal)을 갖는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대화 격률이 합리적인 협력을 고려해서 나온 것이라면 적어도 대화의 상호 협력이라는 점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 (6) ㄱ. 그 사람은 두 명의 아들이 있다.
- ㄴ. 그 옷은 흰색이다.
- ㄷ. 그 사람은 오로지 두 명의 아들만 있다.
- ㄹ. 그 옷은 전체가 흰색이다.

모든 언어에서 발화 (6ㄱ)과 (6ㄴ)은 각각 표준대화함축 (6ㄷ)과 (6ㄹ)을 수반해야 한다. 모든 언어에서 (6ㄱ)은 (6ㄷ)을 함축하고, (6ㄴ)은 (6ㄹ)을 함축함으로써 설명되는 많은 언어학적 일반화는 대화함축 이론 없이는 완전하게 설명될 수 없다.

1.3. 그라이스의 대화함축 이론

그라이스의 대화함축 이론은 의사전달 기준을 만족시키는 비고정적인 추론들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기술한다. 그라이스의 가설은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서 출발하여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에서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언어 사용의 지침으로서 공식화될 수 있다. 그라이스는 일반적인 대화 협력 원칙(co-operative principle)을 나타내는 네 가지 기본 대화 격률(maxims of conversation) 즉, 언어의 효율적인 사용을 기저로 하는 일반 원칙을 설정하였다.

(7) 협력 원칙(The co-operative principle)

대화가 진행되는 각 단계에서 대화의 방향이나 목적에 의해 요구되는 만큼 기여를 하라.

i. 질의 격률(The maxim of Quality)

진실된 기여가 되도록 노력하라. 특히,

- a. 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말하지 말라.
- b. 적절한 증거가 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

ii. 양의 격률(The maxim of Quantity)

- a. 진행되는 대화 목적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라.
- b.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

iii. 관련성의 격률(The maxim of Relevance)

관련성을 지녀라.

iv. 태도의 격률(The maxim of Manner)

명료하라. 특히,

- a. 모호성을 피하라.
- b. 중의성을 피하라.
- c. 간결하라.
- d. 조리 있게 하라.

(7)은 최대한 효과적이고 타당성 있게 상호 협력하여 대화하기 위해서 대화 참여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밝히고 있다. 즉, 대화 참여자는 대화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진실하게, 전후 관계에 맞도록 간단명료하게 말하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일상 대화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이러한 격률에 따라 대화가 진행되지 않을 때, 청자는 이 원칙이 보다 깊은 층위에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상호 협력하고 있다는 가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추론이 생긴다. 그러나 추론이 먼저 생기는 것은 겉에 나타난 것과는 반대되는 가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이다. 이것이 바로 그라이스가 말하는 대화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사람들은 항상 표층에서 이 격률들을 고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을 적어도 어느 층위에서 그 격률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8) 갑: 철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을: 영희의 집 밖에 포르쉐 자동차가 있습니다.

(8)에서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봤을 때, 을의 대답은 갑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적어도 양의 격률과 관련성의 격률을 위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을의 발화는 주제를 바꿈으로써 갑의 관심사를 무시한 비협력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분명히 상호 협력을 이행하지 않는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을의 발화를 보다 깊은 단계에서 상호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해석하려 한다. 즉, 을의 말을 듣는 사람은 상호 협력하고 있다는 기본 가정하에 철수의 위치와 포르쉐 자동차의 위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나를 자문하고서, 만약 철수가 포르쉐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영희의 집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또한 이 격률들이 비언어적 행위 양상도 지배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자동차 수리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질의 격률이 진실하게 행하라는 것이라고 할 때 갑이 을에게 브레이크액을 달라고 하자 을이 알면서도 기름을 준다든가 또는 운전대의 나사를 조이라는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하는 척만 한다면 을은 이 격률을 지키지 않은 셈이 된다. 마찬가지로, 양의 격률이 알맞게 행하라는 격률이라고 할 때 을이 3개의 나사를 필요로 하는데 고의적으로 한 개만 준다든지 아니면 300개를 준다면 갑은 이 격률을 위반한 셈이다. 관련성 격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을이 세 개의 나사를 원한다면 그것은 지금 원하는 것이지 30분 후가 아닌 것이다. 마지막으로 갑이 크기 8인 나사를 원하는데 크기 10인 나사를 건네준다면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태도의 격률을 위반한 셈이다. 위의 각각의 경우에서 대화 격률을 위반하므로 각 행동은 상호 협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대화 격률이 모든 상호협력에 적용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사고에서 나왔다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

2. 대화함축의 특징

대화함축의 특성은 취소가능성, 비분리성, 계산가능성, 비고정성, 비결정성의 다섯 가지이다.

2.1. 취소가능성

대화함축은 취소될 수 있다. 대화함축은 취소가 가능하고 언어학적 또는 비언어학적 화맥에서 삭제될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대화함축 의미는 논리적인 추론인 함의와는 다르다.

- (1) ㄱ. 철수는 세 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다.
 - ㄴ. 철수는 세 마리의 소만 가지고 있을 뿐 그 이상은 없다.
- (2) ㄱ. 철수는 적어도 세 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다.
 - ㄴ. 철수는 세 마리의 소를 갖고 있다. 사실은 10마리이다.
 - ㄷ. 철수는 세 마리의 소를 갖고 있다. 아마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1ㄱ)의 양의 격률 대화함축이 (1ㄴ)이다. (2)는 (1ㄴ)의 대화함축이 없다. 즉, (1ㄴ)은 (2)의 ‘적어도’에 의해 대화함축이 취소됨을 알 수 있다. (2ㄴ)과 (2ㄷ)에서도 (1ㄴ)은 자연스럽게 부정된다. 따라서 취소된다.

추론이 발화의 완전한 의사소통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의도될 수 없다는 것이 화맥상 분명해지면 대화함축은 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목우 장려 보조 계획하에 많은 보조금을 얻기 위하여 한 사람이 세 마리의 소를 가져야 한다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감독관은 철수의 이웃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 (3) 갑: 철수 씨는 필요한 수의 소를 가지고 있나요?
을: 물론이죠. 철수는 세 마리의 소는 갖고 있습니다.

(3)에서 을의 대답은 ‘철수는 세 마리의 소만 가지고 있을 뿐 그 이상은 없다.’라는 대화함축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요구되는 정보는 철수가 실제로 갖고 있는 소의 숫자가 아니라 그 수가 보조금에 대한 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라는 것이 맥락상 분명하게 전해지기 때문에, 대화함축은 취소된다.

대화함축은 비고정성(non-conventional)을 갖는다. 비고정성이란, 대화함축은 언어 표현의 고정적 의미의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화함축은 문장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알고 나서 화맥 내에서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함축은 고정적 의미가 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대화함축은 논리적 내용 또는 의미론적 내용으로부터만 유도되는 추론을 일컫는 함의(entailment)와 대조를 이룬다. 왜냐하면 대화함축이란 의미론적 추론이 아니고, 말해진 내용과 이상적 대화의 협력적 본질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가정들에 근거하는 추론들이기 때문이다.

비고정성은 취소가능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 대화함축이 언어 표현에 고정되어 있다면, 그

것은 취소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맥락이 달라지면, 대화함축은 취소될 수 있다.

(8) ㄱ. 철수는 지식이를 때렸다.

ㄴ. 철수는 지식이를 때려서 죽이지 않았다.

양의 격률에 의해 (8ㄱ)은 (8ㄴ)을 함축한다. 그 이유는 만일 철수가 지식이를 죽였다면 (8)만을 말한 화자는 비협력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보류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짜 죽인 상황에서 오도를 할 목적으로 (8ㄱ)을 말한다면, 그럴 때는 (8ㄴ)은 거짓이 된다. 즉, 대화함축은 취소되므로 언어 표현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2. 비분리성

대화함축 의미의 두 번째 특성은 비분리성(non-detachable)이다. 비분리성이란, 대화함축이 맥락에서 분리되지 않는 특성을 뜻한다. 대화함축은 발화된 맥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맥락이 바뀌지 않으면, 발화된 단어나 문장을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나 문장으로 바꾼다고 해도 대화함축은 변하지 않는다. 즉, 대화함축은 맥락에서 분리되지 않는다.

철수가 바보라는 것을 화·청자 상호간에 알고 있는 화맥에서 반어적으로 아래와 같이 말할 수 있다.

(4) ㄱ. 철수는 천재이다.

ㄴ. 철수는 머리 좋은 천재이다.

ㄷ. 철수는 예외적으로 특별히 현명한 사람이다.

ㄹ. 철수는 대단한 지성인이다.

ㅁ. 철수는 대단히 명석하다.

ㅂ. 철수는 바보이다.

(4ㄱ~ㅁ)의 대화함축은 (4ㅂ)이다. 대화함축은 반어적인 맥락이 제시되면 그것을 일으키는 명제를 뜻하는 모든 다른 방법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즉, 대화함축은 다른 표현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문맥에서 분리되지 않는다.

다른 예를 들어 보자.

(5) 갑: 이번 여행은 어디로 갈까?

을: ㄱ. 뭐니 뭐니 해도 제주도가 최고야.

ㄴ. 제주도는 한 번쯤 가 볼 만해.

ㄷ. 요즘 제주도가 그렇게 아름답다네.

ㄹ. 제주도로 가자.

(5ㄱ~ㄷ)은 모두 (5ㄹ)을 함축하고 있다. 어느 표현으로 바뀌도 (5ㄹ)은 맥락에서 분리되지 않는다.

2.3. 계산가능성

대화함축의 세 번째 특성은 계산가능성(caculable)이다. 계산가능성이란, 모든 발화에서 대화함축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화함축은 청자가 발화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 협력 원칙, 대화 격률을 바탕으로 협력의 가정을 유지하면서 추론한 것이다.

대화함축을 밝히는 일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6) i. 화자는 p를 말한다.
- ii. 화자가 대화 격률 또는 적어도 협력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 iii. 화자는 p를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화 격률 또는 협력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q를 생각해야만 한다.
- iv. 화자는 자신이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q가 가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상호지식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 v. 화자는 청자가 q를 생각하는 데 아무 방해도 하지 않는다.
- vi. 그러므로 화자는 청자가 q를 생각하도록 의도한다. 그리고 p를 발화하여 q를 함축한다.

(6)의 방법으로 대화함축이 계산될 수 있다.

청자가 대화함축 q를 계산하기 위해서 청자는 다음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즉, 화청자 사이의 상호지식은 다음과 같다.

- (7) i. 발화된 문장 p의 고정적 내용
- ii. 협력 원칙과 대화 격률
- iii. p의 맥락(예, 그것의 관련성)
- iv. 배경 정보(예, p는 분명히 거짓이다.)

2.4. 비한정성

비한정성(indeterminable)이란, 대화함축의 집합을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나의 언어 표현은 맥락에 따라서 대화함축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수와 범위를 정확하게 한정할 수 없다.

(9) 철수는 기계다.

(9)는 철수가 냉정하다든지, 유능하다든지, 결코 작업을 멈추지 않는다든지 등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화함축은 그 범위를 한정하기가 불가능하다.

3. 격률 준수에 따른 분류

대화함축은 대화 격률에 대하여 화자가 가지는 관계에 따라 표준대화함축과 비표준대화함축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3.1. 표준대화함축

표준 대화함축(standard implicature)이란, 화자가 대화 격률을 준수하는 데서 발생하는 대화함축이다. 화자는, 화자가 직접적인 방법으로 대화 격률들을 준수한(observing) 경우에도 청자가 자신이 대화 격률을 지킨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 추론에 의해서 대화함축을 추론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1) 갑: (차를 몰다가 행인에게)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을: 아, 그래요? 모퉁이를 돌아가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1)에서 을의 발화는 갑이 거기서 휘발유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을은 그 주유소가 문을 열었으며, 휘발유가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말한다. 즉, 질의 격률을 준수하면서 대화함축을 전달한다. 이와 같이 대화 격률을 준수함으로써 생기는 추론을 표준대화함축이라 한다.

3.1.1. 질(Quality)의 표준대화함축

질의 표준대화함축(standard Quality implicature)은 화자가 질의 격률을 준수하면서 생긴 대화함축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발화할 때, 화자가 어떤 진술을 하면 화자 스스로가 그 진술을 믿고 있음을 함축하며, 화자가 어떤 질문을 하면 화자는 청자에게 성실한 대답을 바란다는 것을 함축하며, 화자가 어떤 약속을 하면 화자가 성실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함축한다. 이런 함축이 없이 발화를 하는 것은 질의 격률을 어기는 것으로서 잘못된 것이다.

화자가 진술한 것은 화자가 믿는 것이어야 한다.

(2) ㄱ. 철수는 두 개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ㄴ. 나는 그가 두 개의 학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ㄷ. ??나는 철수는 박사학위가 두 개라고 진술하지만,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2ㄱ)은 (2ㄴ)을 함축한다. 질의 표준 대화함축은 (2ㄷ)과 같은 발화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2ㄷ)은 화자가 진술한 것은 화자가 믿는 것이어야 한다는 표준 질 대화 함축(standard Quality implicature)에 모순되기 때문에 성립될 수 없다.

질문을 할 때는 성실하게 질문해야 한다. 즉, 화자는 알고자 하는 정보를 모르면서 질문해야 한다.

(3) ㄱ. 형님의 농장은 4만 평이에요?

ㄴ. 형님의 농장이 4만 평인지 몰라서 알고 싶습니다.

(3ㄱ)은 (3ㄴ)을 함축한다.

3.1.2. 양(Quantity)의 표준대화함축

양의 표준대화함축은 화자가 양의 격률을 준수하면서 생긴 대화함축을 뜻한다. 화자는 진술할 때, 그 상황이 요구하는 가장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즉, 그 상황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ㄱ. 철수에게는 14명의 자녀들이 있다.

ㄴ. 철수에게는 오로지 14명의 자녀들만 있다.

(5) ㄱ. 깃발은 흰색이다.

ㄴ. 깃발은 오로지 흰색이다.

(6) 갑: 지난번 재판에서 철수는 어떤 판결을 받았나요?

을: ㄱ. 그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ㄴ. 그는 오로지 벌금형만 받았습니다.

(4ㄱ)을 말하는 화자는 (4ㄴ)을 함축한다. 왜냐하면, 만약 그에게 20명의 자녀가 있다면 요구되는 만큼 말하라는 양의 격률에 의해서 20명이라고 말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5ㄱ)은 그 깃발이 갖고 있을지도 모를 다른 색깔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깃발에는 다른 색이 없으며 완전히 흰색임을, 즉 (5ㄴ)을 함축한다. (6ㄱ)은 (6ㄴ)을 함축한다. 만일 나중에 철수가 종신형을 받았음이 밝혀지면, 더욱이 을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했다면 을은 갑을 오도한 결과가 된다. 왜냐하면, 을은 그 상황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의 예들은 모두 양의 첫 번째 하위격률과 관계되는 것으로 충분한 정보가 요구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 대화함축은 주어진 문장의 명제 내용(propositional content)에 ‘오로지 N만’을 덧붙임으로써 해석될 수 있다.

(7) ㄱ. 철수에게는 오로지 14명의 자녀들만 있다.

ㄴ. 깃발은 오로지 흰색만이다.

ㄷ. 그는 오로지 벌금형만 받았습니다.

3.1.3. 관련성(Relevance)의 표준대화함축

관련성의 표준대화함축은 화자가 관련성의 격률을 준수하면서 생긴 대화함축을 뜻한다. 만일 대화를 할 때 대화함축이 관련성의 가정하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많은 인접 발화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8) 갑: 시간을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을: 글썄요, 우유배달부가 다녀갔습니다.

(8)에서 을의 대답이 갑의 질문과 관련성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한해서만, 부분적이거나 응답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 추론은 대략 다음과 같이 작용한다.

(9) ㄱ. 을의 발화가 관련성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ㄴ. 을이 자신의 발화 내용으로 갑의 질문에 상호협력적으로 대답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부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을이 충분히 알려줄 수는 없으나 우유배달부가 다녀간 것이 부분적이거나 대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ㄷ. 따라서 갑은 을이 그 시간이 적어도 우유배달부가 보통 왔다가는 시간 이후임을 알려 주고자 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3.1.4. 태도(Manner)의 표준대화함축

태도의 표준대화함축은 화자가 태도의 격률을 준수하면서 생긴 대화함축을 뜻한다. 태도의 세 번째 하위 격률 ‘(iii) 간결하라.’를 생각해 보자. 간단한 표현을 쓰지 않고 복잡한 말을 할 경우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한 기술이 현재의 상황에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10) ㄱ. 문을 여시오.

ㄴ. 문으로 걸어가서, 손잡이를 시계방향으로 다 돌리고 나서 당신이 있는 쪽으로 부드럽게 당기시오.

(10ㄱ) 대신에 (10ㄴ)과 같이 발화한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특별히 주의해서 (10ㄱ)을 행하

는 데 관련된 각 행동을 조심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10ㄴ)이 보다 긴 표현 사용의 대화 함축이다.

태도의 네 번째 하위 격률 ‘조리 있게 하라.’를 준수한 대화함축을 보도록 한다.

(11) ??장군이 한양 쪽으로 달려갔고, 말에 올라탔다.

(11)은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말해야 한다는 우리의 예상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예상을 하는 것은 대화 참여자가 하위 격률 ‘조리 있게 하라.’를 준수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2)를 보고 우리는 그것을 그 순서대로 일어난 일련의 두 사건으로 해석한다.

(12) 철수는 가게에 갔고 몇 병의 맥주를 샀다.

3.2. 비표준대화함축

비표준대화함축이란, 화자가 고의적으로 대화 격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생기는 대화함축이다. 그라이스는 이것을 격률의 의도적 위반(floutings or exploitations)이라고 하였다. 비표준대화함축의 추론은 협력 원칙 가설의 강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만일 어떤 사람이 묘하게 대화 격률을 어긴다면, 그때 그의 발화는 협력 원칙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대화 격률을 분명하게 어김으로써 화자는 청자가 협력 원칙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전달하려는 의미를 확대해석하도록 강요한다.

(13) 갑: 아이들에게 무얼 좀 사 줍시다.

을: 좋아요. 그러나 I-C-E-C-R-E-A-M-S은 안 돼요.

(13)에서 을은 ice-cream이란 단어를 철자로 말함으로써 명백히 태도의 격률을 위반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아이들 앞에서 ice-cream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아이들이 바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대화함축을 갑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3.2.1. 질(Quality)의 비표준대화함축

질의 비표준대화함축은 화자가 질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배하면서 생긴 대화함축을 뜻한다. 다음 대화는 분명히 질의 격률을 위배하고 있다.

(14) 갑: 만약 소련이 걸프만을 봉쇄하고 기름을 차단하면 어떻게 하지요?

을: 오, 진정해. 영국이 바다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14)의 대화 참여자는 을의 발화가 거짓임을 알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을이 갑을 속이려 할 수 없다. 을이 상호 협력하고 있다는 가정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을은 그가 실제로 말한 것과는 다른 무언가를 뜻한다고 확대해석하는 방법이다. 을이 전달하고자 하는 상호 협력적인 명제를 주변에서 찾아보면 을이 한 말의 반대 또는 부정, 즉 다시 말해서 영국이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갑의 발화와의 관련성 격률에 의해 영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만일 상호 협력한다는 가정이 깔려있지 않다면 아이러니를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은 난처해질 것이고, 어떤 추론도 끌어낼 수 없을 것이다.

비표준대화함축은 전통적 수사법에서 많이 나타난다.

(15) 김 회장은 철로 만들어졌다.

(15)와 같은 발화를 행한다면 의미론적 범주에서 볼 때 선택 제약을 위배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자는 상호 협력을 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 회장’은 실제로 철의 속성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 말이 소통되려면 ‘김 회장’은 딱딱함, 견고함, 내구성과 같은 부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자질들이 발화의 어떤 화맥에 의존하는지 살펴보면, ‘김 회장’을 존경하는 사람은 그의 견고성과 성실성을 칭찬하려는 의미를 전달하려는 것이다. 또한 ‘김 회장’을 비방하려는 사람은 융통성의 부족, 냉정함 등을 전달하려고 의도한다.

질의 격률을 위반하는 다른 예로 다음과 같은 발화를 들 수 있다.

(16) 갑: 테헤란은 터키에 있지요, 선생님?

을: 아마 런던은 미국에 있을 거야.

(16)에서 을의 발화는 갑의 발화가 틀렸다는 것을 암시한다.

수사 의문문도 질의 격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수사의문문에서는 질문의 진지성, 즉 질의 격률을 분명히 위배함으로써 대화함축이 일어난다.

(17) ㄱ. 태양이 서쪽에서 뜰 수 있을까?

ㄴ. 태양은 분명히 서쪽에서 뜰 수 없다.

(17ㄱ)의 발화를 대화 참여자가 믿는다면 (17ㄴ)의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